

art

INCULTURE



특별기획 畫家, 길을 떠나다 세계 16곳의 사이트, 16가지 빛깔의 작업 이야기

2008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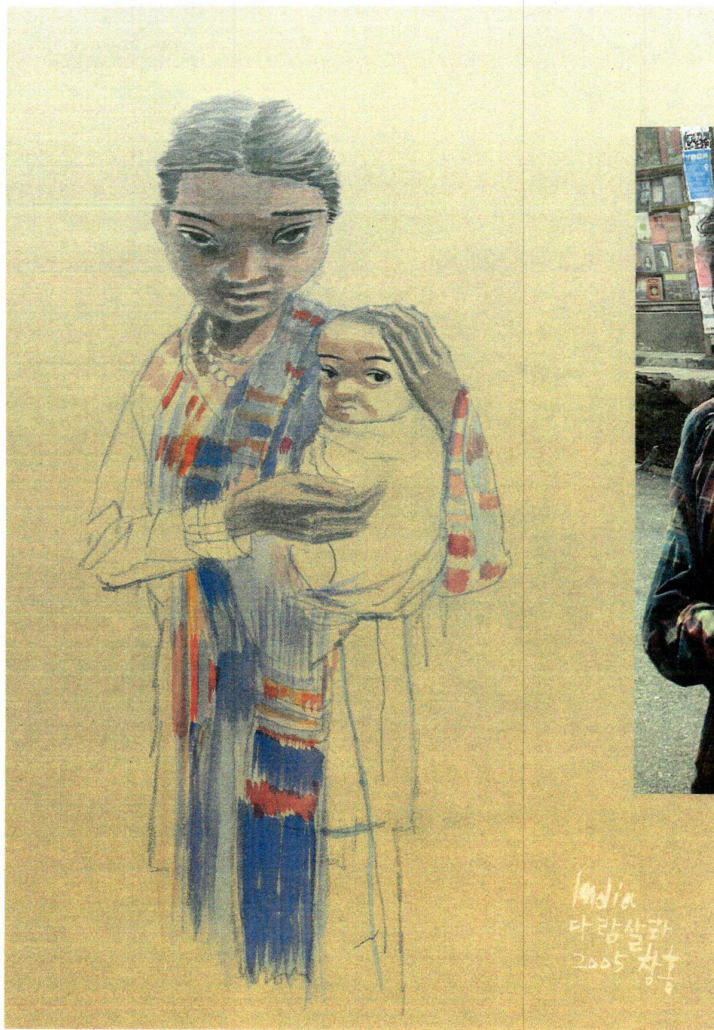


인도 안창홍

뭄바이행 열차를 타고

여행을 하다 보면 간혹, 감흥과 회상에 잠겨서 조용히 기록에 몰두한 여행자들을 본다. 서늘한 보리수 그늘 밑이나 고즈넉한 템플의 풍경소리 아래서, 모두 잠든 야간열차의 희미한 불빛 아래서, 배낭에 기대앉아 여행을 통해 경험하는 감흥의 크고 작은 느낌들을 기록하는 모습들은 아름답다. 다시 돌아간 바쁜 일상 속에서 자칫하면 망각의 늪 속으로 밀쳐 나버릴 소중한 기억들이, 부지런한 손가락의 놀림을 통해, 종잇장에 빼곡히 박혀서 다시 펼쳐질 순간을 기다리며 술한 세월을 그슬려 보관되는 것이다. 먼 훗날 빛바랜 메모장을 우연히 펼쳤을 때 탈색한 페이지마다 보석 같이 박혀있는 글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불현듯이, 멈춰진 시간 속으로 되돌아가 회상의 열차에 몸을 실으면 지나간 기억들이 막 지핀 모닥불처럼 피어오르고 마음은 이미 그때 그곳으로 달려갈 것이다. 그때 겪었던 무모한 열정과 성급했던 판단들, 난감하고 잊고 싶었던 시행착오, 싸구려 감상에 빠진 하찮은 동정심까지도 오히려 그리워질 것이다. 그 모든 것들이 산 경험을 통한 반성과 성찰의 자선이 되어 지금의 자신을 존재케 한, 소중한 기억들로 다가올 것이며 가슴 뿌듯한 여유로움과 감회를 맛보게 될 것이다. 추억할 삶이 없다면 그것만큼 크나큰 불행이 어디 있겠는가? 지나간 것들 중 가장 감미롭고 달콤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비교해 볼 필요조차 없는 여행에 대한 회상일 것이다. 또한 시행착오를 통한 경험의 교훈만큼 인생에 있어 튼튼한 밑뿌리가 어디 있겠는가? 이렇듯 여행지에서의 꼼꼼한 메모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안개 속의 기억으로부터 선명하고도 분명한 과거의 시간을 일깨우는 역할을 해줄 것이다. 나 또한 오늘 이 순간을 먼 훗날 추억하기 위해 흔들리는 차창에 기대 부지런히 메모를 하고 있는 것이다.





위 왼쪽부터 시계방향
 〈다람살라에서 I〉 종이에 과슈 2005
 〈다람살라에서 II〉 종이에 과슈 2005
 가족 사료용인 듯한 풀더미를 집어지고
 가는 여인의 모습



왼쪽 페이지
 〈인도 인상 II〉 종이에 과슈 2005



위·〈인도 인상 I〉 종이에 과슈 2005_식물문양과
아우러진 인도의 인상
아래 왼쪽·〈소와 나〉 종이에 과슈 2005
오른쪽·〈킹스네이크 호수에서〉 종이에 과슈
2005_선상호텔 투숙객을 상대로 꽃을 파는 꽃장수

